

# 충청남도 시·군 명칭의 유래와 경역(11)

## - 서천군 -

임선빈(충청남도시장군수협의회 전문위원)

충청남도에는 15개의 시·군이 있습니다. 이들 시·군의 경역(境域)은 대체로 일제강점기인 1914년에 인위적인 통합으로 그 윤곽이 정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공주시와 같이 조선시대의 공주목 경역에서 축소된 지역도 있고, 아산시나 부여군과 같이 조선시대까지는 3~4개의 고을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로 통합된 고을도 있습니다. 고을의 명칭과 경역도 백제·통일신라·고려·조선에서 각각 달랐던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의 시·군 명칭은 언제부터 등장했으며, 오늘날의 시·군 경역은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을까? 궁금합니다. 대부분의 지역 주민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시·군의 명칭 유래와 경역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 고을에 대해서는 관심을 지니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충청남도 시·군 공직자나 지역 주민들도 이웃 시·군을 이해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서천군(舒川郡)은 1914년에 서천군·한산군·비인군이 통합되어 서천군으로 불리우기 시작했다.

서천에는 마한의 비리국(卑離國)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삼국시대에는 백제의 설림군(舌林郡)이었고, 통일신라시대인 경덕왕 15년(756)에 서림군(西林郡)이라고 하였으며, 고려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현종 9년(1018)의 지방제도 개편 때 가림현의 임내에 소속시켰다가, 뒤에 감무를 두었으며, 충숙왕 1년(1314)에 이 고을 사람인 이언충(李彦忠)이 충선왕(재위:1298, 1308~1313)에게 공로가 있다고 하여 지서주사(知西州事)로 승격되었다. 조선시대에는 태종 13년(1413)에 도호부 이상의 큰 고을에만 고을명에 ‘州’ 자를 사용하는 조치에 의해 서천군(舒川郡)으로 고치고, 이후에는 종4품의 군수가 수령으로 부임했다. 1895년의 23부제에서 홍주부 서천군으로 편제되고, 1896년의 13도제에서 충청남도 서천군(3등군)이 되었으며, 1914년에 서천군·한산군·비인군이 합쳐져 서천군이 되었다.

한산(韓山)은 백제의 마산현(馬山縣)으로, 신라에서도 그대로 마산현이라 불리웠으며, 경덕왕 16년(757)의 지방제도 영속 관계 개편에서 가림군(嘉林郡)의 영현이

되었다. 고려시대에는 태조 23년(940)에 한산현(韓山縣)으로 고치고, 가림의 임내(任內)에 속하다가, 명종 5년(1175)에 비로소 감무를 설치하여 홍산(鴻山)을 함께 다스리도록 했다. 뒤에 승격하여 한주(韓州)가 되고 수령으로 지한주사(知韓州事)가 파견되다가, 조선 초기인 1413년(태종 13)에 도호부 이상의 큰 고을에만 고을명에 ‘州’ 자를 사용하는 조치에 의해 한산군으로 고치고, 종4품의 군수가 수령으로 부임하기 시작했다. 1895년의 23부제에서 홍주부 한산군으로 편제되고, 1896년의 13도제에서 충청남도 한산군(3등군)이 되었으며, 1914년에 서천군에 병합되었다.

비인(庇仁)은 백제의 비중현(比衆縣)이었는데, 경덕왕 16년(757)에 비인(庇仁)으로 고쳐 서림군(西林郡)의 영현으로 삼았다. 고려에서도 그대로 이어오다가, 현종 9년(1018)에 가림현(嘉林縣) 임내에 속하였다가, 뒤에 감무를 두었다. 조선 초기인 1413년(태종 13)에는 감무제도를 혁파하고 현감을 파견하는 제도에 의해 비인현에도 종6품의 현감이 부임하기 시작했다. 비인현은 고종 32년(1895)에 23부제가 실시되면서 홍주부에 속한 비인군이 되었고, 고종 33년(1896)의 13도제에서 충청남도 비인군(4등군)이 되었으며, 1914년에 서천군에 병합되었다.